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반제반미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이자 우리 식 사회주의는 반제투쟁의 성세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당중앙위원회 제 7기 제 2차전회의가 가리킨 사회주의한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미친듯이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의 위업은 가로막을 수 없으며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된 주체의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확정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는 반제투쟁의 핵심 역량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행동을 짓부시고 세계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주도하는 결정적요인입니다.》

침략과 전쟁은 미제의 본성이며 생존방위수단을 잃어버린 채로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미제의 침략본성과 야수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미제가 사상 최대의 반공화국제책들을 미쳐놓았다 못해 유엔부대에서 정신병적인 광태를 부리며 한 주권국가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망발을 제치고 잇달아 반대편 핵전략사상들을 끌어들이어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경계로 끌어가고있는 것은 이에 대한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

계급투쟁수단을 멸망하는 순간이 북와을수록 최후말악하는 법이다. 오늘 미제가 시대적으로적인 대조선적대립정황에 집요하게 매달리며 분열없이 해명되고있는 것은 지구상에 정의가 살아있고 우리의 힘이 그만큼 강해져있고 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고있는 데 대한 반증으로 된다.

승려는 언제나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강대한 사회주의조선, 강성한 조선인민이것이여 쓰디쓴 패배는 정의의

위업을 교살해보려는 미제국주의의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압박하면 할수록 주체조선의 강성한 기상과 무한한 강대한 위력은 더욱 배태해집중되어 우리 인민의 불구대전의 철권지휘권, 인류공공의 원수인 미제가 역사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의 구렁텅이에 처박힐 날은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미제와의 최후전선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리만을 떨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은 그것이 인민의 의지로, 인민의 리상으로 되고있는 데 있다.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이 강한 나라는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 수 없다. 혁사는 인류의 지향에 도전한 침략군대나 파초국가, 악의 제국은 비할한 총성만 떨지 못하였다는 것을 한두번만 보여주시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특색 있는 핵을 짓을 개미핥수 있는 최강의 핵보급과 함께 그 핵을 쓸 수 없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있다. 보병총과 현사관의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다스린 위대한 진공세대의 영웅적기상과 본래를 이어받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떨칠 의지를 안고 반대편에 걸터앉아 버렸었다.

침략과 약탈, 전쟁으로 비대해진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살인장비들이 있어도 자기 제도, 자기 위업을 위하여 북술비해 싸울 각오를 가진 군대와 인민은 없다. 제국주의가 날로 심각해지자 자제모순과 정치적, 사회적위기로 하여 일없이 있는 암흑천지로 점점 쇠퇴해져가고있다. 이런 제국주의가 일심단결의 정신력으로 천하무적의 군복을 더한 정력적인 힘을 가지고있는 주체조선과의 대결에서 패하는 것은 속행이며 필연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천만군민의 생명이고 생활이며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사회주의의 공교성과 불계성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인민의 마음속에 드는지 않는 신념으로 간직되어있는 법이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실생활체계를 통하여 절감하고 그것을 해치려는 원수들이 대항하는 수호도 용서하지 않으려는 투철한 반제투쟁의식을 지닌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가 승리의적으로 전진해나갈 수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북술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이다. 우리 천만군민은 자주적인인민의 존엄과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전면적으로 꽃피워주며 그처럼 어려운 예에서도 인민들의 열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교마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아 혁명하는 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간주하고있는 것이다. 인민적인것, 인민을 위한것이 가장 정의로울것으로 최우선시되고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로 지향되고있으며 인민이 당한 불행은 가사주구 위해서라면 나라의 재부를 희생도 기울이고 인민이 한식속, 친형제까지 되어 서로 돕고 이끄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리념이 사는 우리 인민대중의 복안은 인민은 없다. 하기에 내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며 그 품을 떠나서는 순교도 할 수 없다. 인민, 사회주의와 끝까지 용맹을 함께 하고 그것을 지키는 길에 영원도 생명이 다수없이 바칠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우리 천만군민의 사회주의신념은 혁명의 총대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무차

비하게 쓸어버릴 떨칠의 기상에서 남김없이 분출되고있다. 신진항의 밤나무를 화약상고와 사면이며니고, 태클어린이고, 박물판에 있는 중세기적인 살인흉기를 비롯하여 이 땅의 수탈은 제국교양관들에 전지전 모든 자로성과 증거물들은 미제의 야수성과 악랄성을 그대로 전하여주며 오늘도 천백들의 복수를 질주하고있다. 다시는 이 땅에 서점하는 부르주아자들의 피가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슴속에 원수에 대한 증오를 단강약하고 조국적사수호에 산악같이 떨치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발표후 수백만명의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이 히스테리적인 전쟁광기를 부리는 날강도 미제를 박멸해버릴 불복의지를 목발시키며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단련해나선것은 우리 인민의 투철한 사회주의신념을 잘 보여주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와 우리 천만군민은 영원한 운명공동체이다. 인민대중의 참된 삶과 복음자리, 사회주의 내 조국 정의로울것으로 최우선시되고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로 지향되고있으며 인민이 당한 불행은 가사주구 위해서라면 나라의 재부를 희생도 기울이고 인민이 한식속, 친형제까지 되어 서로 돕고 이끄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리념이 사는 우리 인민대중의 복안은 인민은 없다. 하기에 내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며 그 품을 떠나서는 순교도 할 수 없다. 인민, 사회주의와 끝까지 용맹을 함께 하고 그것을 지키는 길에 영원도 생명이 다수없이 바칠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우리 천만군민의 사회주의신념은 혁명의 총대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무차

비하게 쓸어버릴 떨칠의 기상에서 남김없이 분출되고있다. 신진항의 밤나무를 화약상고와 사면이며니고, 태클어린이고, 박물판에 있는 중세기적인 살인흉기를 비롯하여 이 땅의 수탈은 제국교양관들에 전지전 모든 자로성과 증거물들은 미제의 야수성과 악랄성을 그대로 전하여주며 오늘도 천백들의 복수를 질주하고있다. 다시는 이 땅에 서점하는 부르주아자들의 피가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슴속에 원수에 대한 증오를 단강약하고 조국적사수호에 산악같이 떨치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발표후 수백만명의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이 히스테리적인 전쟁광기를 부리는 날강도 미제를 박멸해버릴 불복의지를 목발시키며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단련해나선것은 우리 인민의 투철한 사회주의신념을 잘 보여주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와 우리 천만군민은 영원한 운명공동체이다. 인민대중의 참된 삶과 복음자리, 사회주의 내 조국 정의로울것으로 최우선시되고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로 지향되고있으며 인민이 당한 불행은 가사주구 위해서라면 나라의 재부를 희생도 기울이고 인민이 한식속, 친형제까지 되어 서로 돕고 이끄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리념이 사는 우리 인민대중의 복안은 인민은 없다. 하기에 내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며 그 품을 떠나서는 순교도 할 수 없다. 인민, 사회주의와 끝까지 용맹을 함께 하고 그것을 지키는 길에 영원도 생명이 다수없이 바칠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우리 천만군민의 사회주의신념은 혁명의 총대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무차

송화군 다담리당위원회에서

예술작품이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력은 대단히 크다. 그것은 예술작품이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고도 생활 예술적화해를 통하여 생활의 권리와 혁명투쟁의 함의성을 가르쳐주기때문이다.

송화군 다담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서 예술소품공연을 통한 반제반미교양을 강화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의 승리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지난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성명발표의 성명이 발표되었을 때였다. 당시시당위원회장은 인공들과 농정원들의 심정속에 불구대전의 원수미제에 대한 치맛는 분노와 떨칠의 보복의지를 탄력적으로 다져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시하게 된행위로 말씀하시었다.

자기 고강도에 실재한 자료를 리용하여 반미교양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리당위원회는 선동사업에 면제나선 교양사업에서 저지른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만행자료를 해설해주고 그 내용으로 농정원들속에 시 선동사업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대중의 가슴마다에 미제의 침략본성과 야수성을 깊이 심어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만족할 수 없었다. 리당위원회는 예술소품공연을 통한 교양사업을 각

실감있는 예술소품공연을

별히 중시하였다. 특히 대회사 《천백배로 복수하라》의 준비사업에 많은 힘을 넣었다.

리당위원들이 체험한 만담담화하는 과정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이 다담당에서 감행한 만행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수직하여 대회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대회시의 내용을 탄핵하고 호곡음악을 선택하는데 조국 미제에 대한 적개심이 쇠대로 분출되도록 지휘를 함쳐나갔다. 일꾼들을 출연자로 선정하고 형상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봄을 들어 준비한 대회사 《천백배로 복수하라》는 시작부터 농정원들의 심정을 끌어잡았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다담당에 거여는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이 리사무당에게 야수적인 고문행위를 당한 사지를 찢어죽였다는 생생한 이야기를 단정제와 건부시계 반영한 대회시는 농정원들의 적개심과 보복의지를 총괄받시었다.

자기 고강도에 실재한 사실 자료를 반영한 예술소품공연을 실시한 것만으로도, 린후격의 의지안고 단정원영준위로 한사관들이 면제나선 일꾼들과 농정원들이 언제 농사지은 낱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마땅히 거두어들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여 결국적으로 낱알이거울같이 열 제일면적경에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상사업용 인력 배도 장 조직사색을 앞세우면서 명동화로 대중의 심정에 불을 타는 이곳 리당위원들의 사업기쁨은 분출한다 한다.

김 혁 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제해설 《반제반미계급교양에서 기본은 미제의 침략본성과 야수성을 똑바로 알려주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이 명제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투철한 반제반미계급교양으로 훈련하는 투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인민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소홀히 하면 사람들의 혁명적의, 계급적의 이마비되고 혁명의 과녁, 주적판이 흐려져 피로써 정위한 사회주의 전위투쟁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도수를 계속 높여야 하며 여기에서 기본은 조선인민의 불구대전의 철권지휘권이 미제에게는 투쟁대상이고 주되는 적인 미제의 침략본성과 야수성을 군인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똑바로 알려주는 것이다.

인민을 멸살시킨 피마두에 생지났듯이 미제와 진공초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백년의 역사가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약탈, 파괴와 살포스로 얼룩진것이 다름이 아닌 미국이다. 장구한 인류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아메리카식민주주리인 미제와 같이 횡포한 침략과 파괴를 국가정도로 내세우고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로 더러운 불공정을 살쳐온 침략국가, 악의 제국은 찾아볼 수 없다. 미제야말로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과 약탈로 버둥을 부리며 비대해진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이다.

오늘 극도로 요만해진 미제는 세계 정치부대에서 장권과 권형, 특권주의를 공공연히 부리면서 국제적외와 정서로 무방한 짓밟고있다. 《반제반미》이요, 《인민용호》요 하는 간판 밑에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진미정권을 끌어들이기 위해 백주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고있으며 국제부대에서 반미투쟁적인 나라들을 위협하여 제재봉쇄를 마구 휘두르는 파멸적인 침략자, 정의의 교살자이며 적이다.

역사와 현실은 지구상에 미제국주의의 전위투쟁을 지탱할 수 없는 세계에서 공화롭게 살려는 인류의 념원은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다는 것을 피의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아메리카식민주의들을 대항할수하는 데서 그 잔인성과 야수성으로 인명뿐인 양키들의 후예인 미제는 투쟁과 근로자살을 이끄는 것이다.

미제의 침략의 발발이 가뭇한 곳마다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인민들의 피가 흘렸던가.

중세기적인 인간도살자들과, 파로강 도베르도 무죄로 할 송냥이 미제의 야수성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에서 극치를 이루었다. 1868년 칠판선 《서문》호의 강도적침입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을 시작한 미제는 세기 뒤 세기를 이어 오늘까지 우리 인민에게 헤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특히 1950년대에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전대미문의 인간살상만행은 미제야말로 인민의 발을 눈구며 비대해진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복반부를 일시적으로 강점한 미제살인귀들은 짐승도 낮을 풀릴 약한 학살정서로 우리 인민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다. 미제가 얼마나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는지 하는 것은 신문에서 읽어도 못하는 기간에 무찌무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고있으며 국제부대에서 반미투쟁적인 나라들을 위협하여 제재봉쇄를 마구 휘두르는 파멸적인 침략자, 정의의 교살자이며 적이다.

역사와 현실은 지구상에 미제국주의의 전위투쟁을 지탱할 수 없는 세계에서 공화롭게 살려는 인류의 념원은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다는 것을 피의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아메리카식민주의들을 대항할수하는 데서 그 잔인성과 야수성으로 인명뿐인 양키들의 후예인 미제는 투쟁과 근로자살을 이끄는 것이다.

미제의 침략의 발발이 가뭇한 곳마다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인민들의 피가 흘렸던가.

중세기적인 인간도살자들과, 파로강 도베르도 무죄로 할 송냥이 미제의 야수성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에서 극치를 이루었다. 1868년 칠판선 《서문》호의 강도적침입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을 시작한 미제는 세기 뒤 세기를 이어 오늘까지 우리 인민에게 헤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특히 1950년대에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전대미문의 인간살상만행은 미제야말로 인민의 발을 눈구며 비대해진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이다.

중차대한 문제로 틀어쥐고 방법론있게 안주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안주시당위원회에서는 반제반미대결선이 더욱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반제반미계급교양으로 훈련하는 투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인민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소홀히 하면 사람들의 혁명적의, 계급적의 이마비되고 혁명의 과녁, 주적판이 흐려져 피로써 정위한 사회주의 전위투쟁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도수를 계속 높여야 하며 여기에서 기본은 조선인민의 불구대전의 철권지휘권이 미제에게는 투쟁대상이고 주되는 적인 미제의 침략본성과 야수성을 군인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똑바로 알려주는 것이다.

인민을 멸살시킨 피마두에 생지났듯이 미제와 진공초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백년의 역사가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약탈, 파괴와 살포스로 얼룩진것이 다름이 아닌 미국이다. 장구한 인류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아메리카식민주주리인 미제와 같이 횡포한 침략과 파괴를 국가정도로 내세우고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로 더러운 불공정을 살쳐온 침략국가, 악의 제국은 찾아볼 수 없다. 미제야말로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과 약탈로 버둥을 부리며 비대해진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이다.

안주시당위원회에서는 반제반미대결선이 더욱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반제반미계급교양으로 훈련하는 투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인민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소홀히 하면 사람들의 혁명적의, 계급적의 이마비되고 혁명의 과녁, 주적판이 흐려져 피로써 정위한 사회주의 전위투쟁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도수를 계속 높여야 하며 여기에서 기본은 조선인민의 불구대전의 철권지휘권이 미제에게는 투쟁대상이고 주되는 적인 미제의 침략본성과 야수성을 군인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똑바로 알려주는 것이다.

인민을 멸살시킨 피마두에 생지났듯이 미제와 진공초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백년의 역사가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약탈, 파괴와 살포스로 얼룩진것이 다름이 아닌 미국이다. 장구한 인류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아메리카식민주주리인 미제와 같이 횡포한 침략과 파괴를 국가정도로 내세우고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로 더러운 불공정을 살쳐온 침략국가, 악의 제국은 찾아볼 수 없다. 미제야말로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과 약탈로 버둥을 부리며 비대해진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이다.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인민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소홀히 하면 사람들의 혁명적의, 계급적의 이마비되고 혁명의 과녁, 주적판이 흐려져 피로써 정위한 사회주의 전위투쟁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도수를 계속 높여야 하며 여기에서 기본은 조선인민의 불구대전의 철권지휘권이 미제에게는 투쟁대상이고 주되는 적인 미제의 침략본성과 야수성을 군인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똑바로 알려주는 것이다.

인민을 멸살시킨 피마두에 생지났듯이 미제와 진공초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백년의 역사가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약탈, 파괴와 살포스로 얼룩진것이 다름이 아닌 미국이다. 장구한 인류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아메리카식민주주리인 미제와 같이 횡포한 침략과 파괴를 국가정도로 내세우고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로 더러운 불공정을 살쳐온 침략국가, 악의 제국은 찾아볼 수 없다. 미제야말로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과 약탈로 버둥을 부리며 비대해진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이다.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인민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소홀히 하면 사람들의 혁명적의, 계급적의 이마비되고 혁명의 과녁, 주적판이 흐려져 피로써 정위한 사회주의 전위투쟁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도수를 계속 높여야 하며 여기에서 기본은 조선인민의 불구대전의 철권지휘권이 미제에게는 투쟁대상이고 주되는 적인 미제의 침략본성과 야수성을 군인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똑바로 알려주는 것이다.

인민을 멸살시킨 피마두에 생지났듯이 미제와 진공초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백년의 역사가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약탈, 파괴와 살포스로 얼룩진것이 다름이 아닌 미국이다. 장구한 인류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아메리카식민주주리인 미제와 같이 횡포한 침략과 파괴를 국가정도로 내세우고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로 더러운 불공정을 살쳐온 침략국가, 악의 제국은 찾아볼 수 없다. 미제야말로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과 약탈로 버둥을 부리며 비대해진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이다.

형식이 새로운 향상 그 실효가 높고, 이에 대한 단

담을 우리는 소묘전시회를 통하여 반미교양을 심화시켜나가고있는 박광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근로자들과 학생들에게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몇해전 새로 임명된 박광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장은 사상교양사업정형은 알아보면 중 하나의 사실에 주목을 돌려주었다. 6.25-7.27년미공공투쟁행동을 맞으며 공광초급당위원회에서 소묘전시회를 조직하고있었던것이

중요한 점이었다. 그런데 참가대상

복수열기를 높여줄 소묘전시회

박광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이 문재였다. 처음에는 소묘전시회에 참여원 모두가 참가하여 자기의 작품을 내놓았다. 그러나 취미와 재능정도 따라 내놓은 작품품성이 일정한 차이가 나게 되자 일부 참여원들이 심심을 잃고 빠지게 되었다. 특히 가정부인들이 일감이 많지 않은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다나 이 해가 가에 따라 그 수가 줄어들어 그림에 조여나 취미가 있는 참여원들만 소묘전시회에 참가하고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소묘전시회가 자기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전시회를 조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참여원들이 송냥이 미제의 살인적본성을 낱알이 곡로 하는 그림을 세운으로 그려는 과정에 미각능력의 야만성을 더욱 계속깊이 새기도록 하고 그들의 가슴가슴을 복수심으로 끌어안게 하는데 있지 않겠는가. ...)

년 시기 가장 정성을 앞세우면서 적극성이 없었던 녀성참여원들이 박광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장이 다 함께 된것으로 바로 이런 치밀한 조직사업의 결과였다.

소묘전시회가 진행되는 날 참여원들은 송냥이 미제의 살인적본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수백점의 소묘작품들을 보며 제국주의의침략의 그날까지 제국의 흉상을 더욱 억세게 버려갈 불라는 맹세를 다지고 또 다졌다.

소묘전시회가 지낸 복수의 불같은 생생적의의 함입과 이이였다. 참여원들은 반공화국교양사업에 더욱 악랄하게 대어달리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질주를 내리는 심정으로 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이것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보여준다. 새로운 형식이 교양사업도 그것을 어떻게 짜고드는가에 따라 그 실효가 다르게 나타난다는것을.

박 주 현

박 병 주 동 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산소열법용광로건설정형 현지료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광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장은 사상교양사업정형은 알아보면 중 하나의 사실에 주목을 돌려주었다. 6.25-7.27년미공공투쟁행동을 맞으며 공광초급당위원회에서 소묘전시회를 조직하고있었던것이

중요한 점이었다. 그런데 참가대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광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장은 사상교양사업정형은 알아보면 중 하나의 사실에 주목을 돌려주었다. 6.25-7.27년미공공투쟁행동을 맞으며 공광초급당위원회에서 소묘전시회를 조직하고있었던것이

중요한 점이었다. 그런데 참가대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광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장은 사상교양사업정형은 알아보면 중 하나의 사실에 주목을 돌려주었다. 6.25-7.27년미공공투쟁행동을 맞으며 공광초급당위원회에서 소묘전시회를 조직하고있었던것이

중요한 점이었다. 그런데 참가대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광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장은 사상교양사업정형은 알아보면 중 하나의 사실에 주목을 돌려주었다. 6.25-7.27년미공공투쟁행동을 맞으며 공광초급당위원회에서 소묘전시회를 조직하고있었던것이

중요한 점이었다. 그런데 참가대상



